

# 추상화 기법 수목화의 향연 뉴욕에서

성숙 세튼 작가의  
전시회 '침묵속의 춤'  
생기넘치는 색깔  
춤추는 듯한 선·점 이용



BBCN은행 맨해튼 지점에서 4월13일부터 10월3일까지 약 6개월간 성숙 세튼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수목화가 성숙 세튼(홍성숙) 작가의 초대전 '침묵 속의 춤'이 맨해튼의 한 은행에서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다.

비영리 미술인지원단체 알재단(AHL 대표 아슈너)이 기획한 이번 초대전은 갤러리를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도록 하는 '아트 인더 워크플레이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시는 알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BBCN은행 맨해튼 지점에서 4월13일부터 10월3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성숙 세튼 작가의 '성숙 세튼: 침묵속의 춤' 전시는 수목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사용한 완전 추상 작품부터 도시와 자연의 풍경을 부분적으로 추상화한 리듬감있고 생기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동양의 수묵화 전통을 이어가는 성숙 세튼의 작업은 우아하고 질제된 화면속에 담긴 생기넘치는 색깔과 춤추는 듯한 선과 점들, 에너지 넘치게 흩뿌려진 물감방울은 평화와 고요함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자신의 주위환경을 이같이 명상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해석한다. 액션페인팅을 떠올리게 하는 작가의 추상화들은 즉흥적이고도 힘있게 닥종이 위를 춤추고 공격하고 또 미끄러져 내려가는 빛의 움직임에 빠짐없이 드러내

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알재단은 "호흡 하나하나가 작품을 완성하고, 각각의 붓자국은 작가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면서 "작가의 보다 묘사적인 작업들은 시간이 정지된 듯한 고요한 순간들을 느긋한 리듬으로 즐기는 듯 보인다"고 평가한다.

세튼 작가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마음과 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섬세함을 강화시키고 서서히 몸과 마음의 합일을 이뤄나가는 훈련은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미술학사, 고다드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성숙 세튼 작가는 한국과 중국의 수묵화 대가들에게 동양의 전통적인 수묵화와 서예 기법을 사사받고 독일 영국과 미국에서 서양미술도 공부했다.

20여회의 국제적 솔로 프로젝트를 비롯, 퀸즈 뮤지엄과 갓윈 탄바크 뮤지엄, 아이슬립 아트 뮤지엄, 롱아일랜드 뮤지엄, 타이완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테이페이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등 다수의 그룹전시에 참여했다.

성숙 세튼이 음악가들과 진행한 멀티미디어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는 스토니 브룩 대학의 찰스 R. 왕 센터 시너지

아트 갤러리와 지니 탭글스 갤러리에서 열린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 등이 있다.

전미 수묵화 협회의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현재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 칼리지와 차이나 인스티튜트, 롱아일랜드의 아트 리그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알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아트 인더 워크플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 작품들을 일하는 공간에 전시하며 재능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폭넓게 알리고 있다.

성숙 세튼 초대전의 오프닝 리셉션과 작가와의 대화는 13일 오후 5시30분부터 열린다.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관객 급증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관객들의 영화 취향을 만족시키며 예술영화 거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독립영화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료 관객수는 9,03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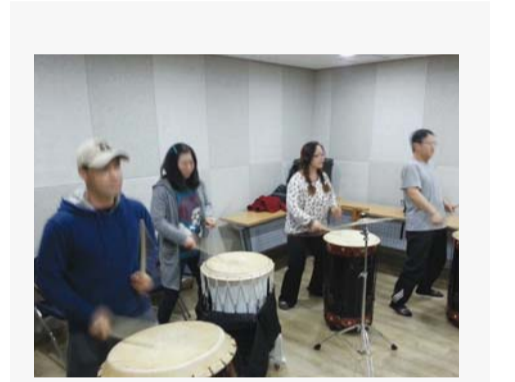
영화관은 이 같은 결과는 주말의 명화, 개봉예정작 관객실문조사, 관객 동아리 활동지원 등 관객중심의 새로운 시도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관객층이 요인으로는 매주 주말에 상영되는 '주말의 명화'가 관객 수를 견인했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국내에 개봉되는 작품이나 재개봉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12년 만에 재상영해 관객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관객들이 직접 개봉작을 선정할 수 있는 '개봉예정작 관객실문조사'와 27명의 관객회원들로 구성된 관객동아리의 영화 리뷰도 관객 동원에 일익을 담당했다. 영화관은 회원들의 1년간 활동을 리뷰모임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그 외에 영화관은 주변 상점과 연계한 제휴이벤트를 확대해 관람료 할인 후원회 특별시사회,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 가고 있다.

/정해은 기자



남원에 열중하는 젊은이들

## 타악퍼포먼스 교육 열공

남원시, 9월말까지 난타 전문가 수업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에서는 9월말까지 매주 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으로 운영되는 타악퍼포먼스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타악퍼포먼스 교육은 문화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월 전국공모를 통해 민속연구회 소라울림이 선정되어 타악전문가의 지도하에 30여명의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금요일에는 북을 잡아 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을 위한 수업인 기초반 교육이, 화요일은 기초를 벗어나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심화반 교육이 진행되며 모든 교육은 난타용 북을 직접 두드리며 배우는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강전부터 수강신청인원이 선방원원보다 2배가 넘는 시민들이 접수하며 많은 관심을 받은 타악퍼포먼스 교육은 신나는 수업과 열정이 넘치는 강사진 구성으로 매 수업 출석률도 높다.

수강생들은 "너무 즐거워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배우고 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좀 더 열심히 타악을 배우 앞으로는 공연도 가능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타악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담당자는 "이번 교육에 남원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높다. 이러한 열의가 남원이 문화·예술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타악퍼포먼스 수업은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한국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 철회 후 재도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반려 의견 따라 등재기준 타당성 더 보완키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이 일단 철회된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11일 한국의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서원'(남계, 도동, 도산, 돈암, 무성, 병산, 소수, 육산, 필암 서원)은 7월 터키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이코모스의 현지 실사와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1차 전문가 패널 심사를 통

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충족하는 잠재적 가치를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과 '연속 유산의 선택방법' 그리고 '완전성 맥락 속 유산경계의 선택' 등에서 보완이 이루어



한국의 서원

져야 한다"며 반려(defer) 의견을 일러왔다.

문화재청은 이후 2차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

이코모스의 심사제도 변경 등으로 보완된 유산구역의 현지실사는 당해연도인 올해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철회 시 이코모스의 직접 자문 등재 기준에 따른 타당성 설명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 일단 철회가 세계유산의 등재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진안군관내 7개 단체 선정

진안군은 관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문화적 감성지수를 높여줄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7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역량 있는 예술단체로 인정된 7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단체는 문화예술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음악회, 연극, 국악공연,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치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는 군비 1,2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및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과 함께 문화예술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기능이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2일>

**▷쥐띠**  
46년생: 타인의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운.  
6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 작은 일에도 피곤함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2년생: 앞으로 나아가는 운이 아닌 뒤로 물러서야 할 운이다.  
84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자존감이 상승한다.

**▷소띠**  
46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운.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  
73년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88년생: 원한은 삼가는 것이 좋다.

**▷호랑이띠**  
50년생: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운.  
62년생: 이렇듯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는 운이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8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토끼띠**  
56년생: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  
68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결과적으로는 좋으나 격정하지 말고 견뎌내라.  
75년생: 인기 많은 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운.  
87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용띠**  
52년생: 이렇듯 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감정적인 태도는 주변상황을 악화시키니 운동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78년생: 공천권이 약하니 투기는 금물이다.  
88년생: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재약을 당할 수 있는 운.

**▷범띠**  
33년생: 지금온 나날 시기가 아닌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운이다.  
69년생: 손재수가 실물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주의.  
7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운.  
88년생: 정신이 뚜렷하고 맑지 않으니 실수를 안 수 있다.

**▷말띠**  
5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 마찰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일의 70%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8년생: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양보하는 듯 처신해야.  
90년생: 먼저 배움에 후회 이익이 있는 운이니 선심 쓰는 것이 아름다.

**▷양띠**  
5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67년생: 문서에 실심이 있으니 서류나 문서 주조받거나 계약을 하려거든 미루지 마라.  
78년생: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 맞서거나 대립하지 않는 것이 이득.  
91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만큼의 일만 처리하라.

**▷원숭이띠**  
55년생: 건강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운이다.  
68년생: 자신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  
92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노력하라.

**▷닭띠**  
57년생: 원인이 있으니 매사가 순리대로 잘 풀려가며 기쁜 일이 생기는 좋은 운이다.  
69년생: 매사 혼자 판단해서 혼자 행동하지 말고 상의하고 결정하라.  
81년생: 기존의 방식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93년생: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가 도래한다.

**▷개띠**  
49년생: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줄 수 있으니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68년생: 허황된 일만 아니라면 작은 성과는 따르는 운이다.  
70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하라.

**▷돼지띠**  
47년생: 진실은 통하는 법이다.  
59년생: 글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1년생: 상대를 입맛이 보지 마라.  
83년생: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 매사에 꼼꼼하라.